안개비를 헤치고…

겨울비와 함께 광주·전남지역에 안개가 자욱하게 드리운 24일, 광주시 서구 서창동에서 한 시민이 안개 속을 뚫고 자전거를 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시민발목 잡는 '밥그릇 파업' 안돼"

내달 1일 호남권 택시운행 전면중단…광주서 대규모 집회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 개정안'(택시법)을 정부가 거부한 것에 반발, 호남권 택시업계가 내달 1일 대규모 파업을 하기로 결의해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이같은 택시업계의 움직임에 '시민 발목 잡는 밥그릇 파업'이라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광주택시운송사업조합 등 택시업계는 24일 전국택시노조의 결정에 따라 오는 2월1일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 택시가 운행을 중단하고 광주역과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정부 규탄과 택시법의 국회 재의결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28일에도 비상총회를 열고 구체적인 투쟁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관련 전국 4개단체는 오는 30일 영남권 택시의 운행중단을 시작으로 지역별로 한시적인 운행중단을 하고 국회 재의결이 안되면 다음달 20일부터 무기한 운행중단 및 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예정대로 지역별 파업이 이뤄진다면 호남권에서 운행중인 3만여대의 택시가 운행을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일선 택시 운전기사들은 운행 중단 등 파업 참여가 조합들의 기대만큼 높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법인택시 운전기사 정모(58)씨는 "택시법을 살펴보면 운전기사들 보다는 회사나 법인들의 배만 불리는 내용이 많다"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라도 더 일을 할 상황에서 운행중단 참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소식을 접한 회사원 김영석(45)씨는 "택시법이 통과되더라도 택시업체 사업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와중에 운행중단을 하겠다는 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택시법'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버스업계 역시 "고급 교통수단인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데는 어폐가 있는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운수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게 급선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양과동 의료폐기장 건축허가 문제 없다"

광주고법, 남구청 항소 기각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장병우)는 24일 광주시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장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남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의료폐기장 건축에 따른 법적 쟁점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면서 "의료폐기장 건축허가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도 지난해 7월 (주)한재가 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양과동 의료폐기장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남구는 지난 2009년 11월 양과동 의료폐기장(연면적 1127㎡) 건축허가를 내렸으나 2011년 광주시의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위법한 도시계획시설로 건축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입장을 번복해 허가취소 처분한 바 있다.

남구는 당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소속 5~7급 공무원 6명에 대해 1개월 감봉, 견책 등의 징계도 내렸었다. 한편, 남구는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서울대 조국교수 논문 '자기 표절' 의혹 논란

'사형폐지 소론' 영문 중복 제기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의 논문에 '자기 표절'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혹은 지난 16일 생물학연구정보센터 브릭(BRIC) 사이트에 인터넷 언론사 기자라고 밝힌 이용자가 "조국 교수가 논문에서 자기 표절을 했다는 제보가 있다"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 이용자는 2008년 6월 '한국형사정책학회지'에 실린 조 교수의 논문 '사형 폐지 소론' 영문 초록이 같은해 4월 'Asian Journal of Comparative Law'에 발표한 조 교수의 영문 논문 'Death Penalty in Korea : From Unofficial Moratorium to Abolition?' 본문 일부를 표절해 만든 것으로 보인다는 글을 올렸다.

조 교수는 24일 "두 논문은 주제는 같지만 초점이 다르다. 중복되는 부분은 한국의 판례와 법안 소개 부분으로 이는 학계에서 허용되는 '2차 게재'이며 국문 논문 영문 초록 작성시 영문 논문 문장 사용은 표절 판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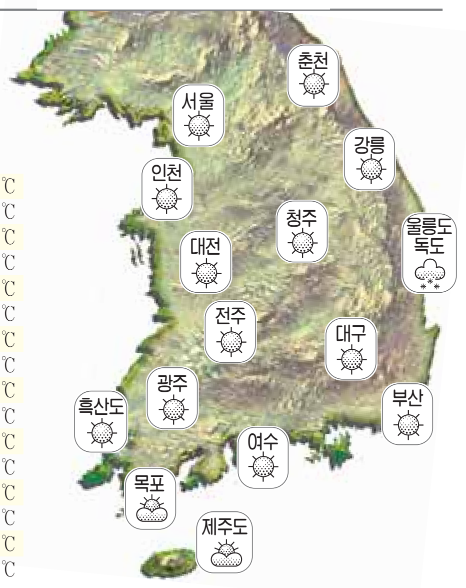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36분 / 해짐 17시 53분 / 달뜸 16시 18분 / 달짐 05시 50분

다시 추워져

오전에 산발적으로 눈 날리겠다.

지역	날씨	기온
광 주	맑음	-5/0℃
목 포	구름많음	-5/0℃
여 수	맑음	-3/1℃
나 주	맑음	-7/-1℃
완 도	맑음	-3/1℃
구 례	맑음	-6/0℃
강 진	맑음	-5/0℃
해 남	맑음	-4/1℃
장 흥	맑음	-5/0℃
순 천	맑음	-5/0℃
영 광	맑음	-7/-1℃
진 도	맑음	-2/1℃
전 주	맑음	-7/-1℃
군 산	맑음	-7/-3℃
남 원	맑음	-9/-2℃
흑산도	맑음	-1/1℃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먼바다	북서~북	2.0~4.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먼바다	북서~북	2.0~3.0m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관심	낮음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먼바다	북서~북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먼바다	북서~북	1.5~2.5m

	밀물	썰물
목포	00:34 13:31	06:14 19:01
여수	08:29 20:29	01:56 14:37

◇주간날씨 —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6(토)	27(일)	28(월)	29(화)	30(수)	31(목)
최저/최고	-6/1	-6/2	-6/3	-5/5	-2/7	0/9

광주지역 일반계고 학생 무더기 탈락

시교육청 근시안적 수용 계획…전년대비 2배 증가

탈락 458명 특수지 학교 진학·타시도 유학 불가피

광주지역 특성화고에 이어 일반계고 학생도 무더기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의 수용계획 예측 실패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24일 광주시의회 박인화 교육위원장(교육의원, 광산구)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으로 올해 일반계고 탈락 학생 수가 지난해(226명)보다 2배 늘어난 458명(남 357명, 여 10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탈락 학생은 특수지학교인 광주 광산구 K고와 남구 S여고로 진학하게 된다. 하지만 인원이 크게 늘어나자 시교육청은 당초 7개 학급만 배정된 K고에 4개 학급(152명)을 늘려 11학급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탈락자 중 78명은 진학을 포기하거나 아예 타지에 유학할 것으로 시교육청은 내다봤다.

이처럼 탈락자 수가 늘어난 것은 지원자 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광주지역 후기 일반계고교 46곳의 지원자 수는 지난해 1만5640명에서 올해 1만6948명으로 1308명이 늘어났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